강좌명 : 우리 역사와 성풍속

1강 : 전통사회 여성과 남성 (4.11)

1교시 : 남성 중심 성문화의 기원
2교시 : 성문화의 변화

1. '性'의 다양한 의미
1) 일반적 의미 : 남녀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개화기 이후 영문의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번역한 것.

2) sex의 어원과 의미의 변화
: 생물학적인 면에서 남녀를 구분. 태어나면서 구분된 선천적인 성별.
어원상 '자른다'(to cut or divide) → 라틴어 동사 secare에서 유래.
플라톤의 「향연」에 언급된 아리스토파네스 이야기
인간의 원래 남녀 양성체, 신에 도전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자 제우스신이 인간을 둘로 분리시킴. 이런 이유로 남녀는 예전처럼 하나가 되려고 서로 다른 반쪽을 추구하게 됨.
에로스 = 행복

3) gender의 의미
생물학적 차원의 섹스와는 달리 정신적인 면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경우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함. 개인이 출생한 이후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환경에 의해 학습되어진 후천적으로 주어진 남녀의 특성. 원래 철학이나 언어학에서만 사용되던 이 용어를 심리학에서 1955년 Money가 외부 생식기가 애매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의 남성 또는 여성적인 상태를 기술하면서 적용.
현재는 섹스가 개인의 남성, 여성, 또는 중성으로서의 개인의 신분을 의미하고 젠더는 신체적으로 행동적인 기준에 따른 개인의 남성 또는 여성적인 특성을 의미.

4) sexuality의 의미
광범위한 개념. 18세기 이후 섹스를 단지 성기 또는 성교로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19세기에는 섹슈얼리티라는 용어가 등장. 개인의 성격, 감정, 행동뿐만 아니라 성적인 존재, 성별 등을 나타내주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 섹슈얼리티는 종족

보존은 물론, 성적 쾌락의 추구 등 성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므로 섹스를 포함함. 개인의 성적 감정이나 종족보존과 상관없는 자위행위는 섹슈얼리티의 일부에 해당. 젠더라는 의미도 문화적이고 심리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섹슈얼리티에 속함.

5) sexual identity(성적 정체성)
해부학적으로 개인이 남성(male)인가 아니면 여성(female)인가를 나타낼 때 적용

6) gender identity(정신 성적인 정체성)
개인이 소속된 사회 문화권에 통용되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나타낼 때 적용-주위환경 또는 사회화과정을 통해, 성역할

2. 동양에서의 '性'의 의미
섹스와 젠더 모두 번역할 때 '성性'으로 번역. 性은 마음(心)과 몸(生)을 동시에 표현. 성은 전체적인 인간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지 결코 성행동이나 성적 쾌락만을 의미하지는 않음(성교, 성행위, 인성, 성격, 본성). 섹스에 대한 의미는 '색(色)'이라는 단어가 더 적격임.
섹슈얼리티는 사전에 성욕이나 성애로 번역. 인간의 성 행동은 물론이고 개인이 갖는 성에 대한 환상, 꿈, 행동,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신념, 이해심 등 모든 것을 지칭하는 표현. 개인의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인격(sexual personality): 환경의 영향과 개인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3. 남성 중심 성문화의 역사적 추이

1) 원시시대
□구석기 시대 : 자연조건을 주목해야. 협동체재로서 남성은 사냥, 여성은 채집→생산활동에서 성별이 분업. 상호 보완적. 성별에 따른 절대적인 분업은
아님.

□신석기 시대 : '농경의 발명은 여성'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이 농경을 담당. 즐문토기→토기제작을 여성이 담당. 의류생활, 직조, 뼈로 만든 바늘
출토 등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 신석기시대에 여성의 지위가 상승
함. 신석기혁명(정착생활, 농경→굶주림으로부터 해방)

여성의 지위 변화→남성에로의 종속
#신석기 때 여성상이 발견(비너스상 세계적), 볼륨 있는 몸매, 유방과 배, 엉덩이 강조→농사가 잘되기를 축원하는 地母신상으로 발전(司祭로 변화).
여성상이 만들어진 것은 모계, 후대에 남성상으로 대체→부계사회를 상징
(타당성이 있다)

□청동기시대 – 생산력의 증대, 정복전쟁, 신분제(계급) 사유재산의 발생, 남녀 사이가 지배와 종속 관계로 변화
→ 남성 道具는 금속제의 발달, 여성은 여전히 원시도구 상태, 농경

2)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스사회-낙태허용, 유부녀가 아닌 다른 여성과의 관계허용. 동성애

아리스토텔레스 : "여성은 남성으로 되려다가 만 잘못된 존재" - 여성은 무언가 결핍되고 불구적인 존재.

로마 - 그리스보다 더 노골적인 성 풍속

3) 중세
성 오거스틴과 성 아퀴나스에 의해 동성애나 자위 행위등이 배척되고 순결이 미덕이 됨.
아퀴나스는 결혼생활 밖에서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욕정이라 정의함. 이혼과 피임반대.

□ 중세의 마녀사냥 : 여성=이브=유혹자. 여성의 생식기에 이빨이 있어서 남성의 생식기를 물어 상처 내므로 경계하라는 믿음이 생김. 여성이 성적인 존재로 판명되면 마녀로 인식됨. 15세기 이후 정조대가 유행하기도 함.

4) 빅토리아왕조시대 이후

□ 빅토리아시대 : 19세기 여성은 성욕이 없는 존재(asexual being)으로 규정되면서 정숙한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으로 이분화 됨. 성욕을 동물적인

것으로 받아들임.

□ 윤리강령 : 대영제국 건설을 위해 기혼남성은 한달에 1회 이상의 성교를 해서는 안 됨. 청소년이나 여성은 성에 대하 알아서도 안 됨. 성적인 내용의 책은 외설로 금지. 처녀성을 잃은 여성은 결혼하기도 힘듬. 여성에게는 성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 결국 여성은 결혼생활 내에서, 남성은 어느 상황에서나 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중기준을 부각시킴.

5)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 20세기 초반까지도 여성은 성에 대해 수동적이며 관심없는 존재로 믿어짐.
"남성은 섹스를 위해 사랑을 바치고 여성은 사랑을 얻기 위해 섹스를 바친다"

5) 근대의 성 연구

기독교의 서구사회는 인간의 성을 추악하게 여겨 연구되지 못함. 1859년 다윈의 진화론 발표 이후 인간과 동물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인간의 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됨.

· **킨제이(1894-1956):** 인디애나대 동물학과교수. '사랑과 결혼'강의를 하던중 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연구시작. 유명한 '킨제이보고서' 완성. 성행동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인물. 미국남성의 37%가 동성애를 경험했다는 보고는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다줌. 여성을 성적인 존재라 언급.

6) 동물학적 견해

왜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고 성적인가?
동물연구를 통해 인간의 성욕을 해석함. - 남녀불평등의 이론적 근거로 삼음

□ 설문조사

일반인의 70%가 남성이 여성보다 성욕이 강하다고 답함.
이들 70% 중 남성 60%, 여성 50%가 남녀의 성욕차이를 선천적이라 답함.
사회생물학자들은 이러한 남녀 간의 이중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첫째, 남자는 수많은 정자를 생산. 남자는 수많은 여성을 임신. 여성은 자신의 난자세포를 결합시킬 상대를 찾는데 신중.
둘째, 자녀들에게 투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과 에너지 양과 관계. 여성은 임신과 양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자기에게 충분히 투자해줄 상대를 고름. 남자는 우연한 상대와 쉽게 관계를 맺거나 바람피우는 전략을 사용하여 수많은 여성을 상

대하지만, 여성은 자기가 상대하는 수를 제한하면서 종족보존을 위한 결정권을 행사함.

7)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

여성-정감, 사랑, 민감, 수줍음, 양보, 동정적
남성-공격적, 양망, 지배적, 독립적, 경쟁적, 분석적
→ 고정관념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형성.

4. 가부장제의 성립과 호주제도

: 家長의 가족성원에 대한 지배를 지지하는 체제→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체제

1) 가부장제에 대한 관점

· 엥겔스 : 원시사회에서는 성차별이 없었으나,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한 채 주변적 부문에 한정되어 기능함. 자본주의 물적 토대에 기초해서 가부장제가 강화되며, 생사과정에서 부차적, 보조적 입장에 선 여성가족원들이 생산과정에서 주위치에 있는 남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됨.

· 여권운동 : 가부장제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로 보는 입장.

· Walby(1990) : 생산양식, 고용노동의 특성, 국가의 정책 입안과 수행에 있어서 가부장적 특성, 남성의 폭력, 性의 가부장적 특성, 문화제도 내 가부장적 특성이 나타남.

2) 가부장적 생산관계의 특성

ㄱ) 무보수인 가사노동
ㄴ) 국가의 고용노동을 통해 나타남.

5. 중국의 가부장제 가족제도

1) 가족의 위계성과 예속성

▶ 父.夫 → 天(一夫多妻, 重婚, 蓄婚, 賣妻)

▶ 母.妻 → 地(소유물시, 三從之道와 貞操 강조)
▶ 七去가 법률적으로 보장.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 토지와 같은 중요한 물건은 처분권은 가장에게 속하거나 적어도 최종 결정권을 가짐. 가족은 가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가산을 처분할 수 없음.
▶ 혼인을 비롯한 친족적 신분행위→ 가장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 이혼도 당사자가 아닌 부모의 의사를 따라야 함.

2) 가족의 集合性과 共産性
▶ 同居同財

3) 家의 영속성
▶ 가부장제 가족은 조상숭배를 성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
가족생활의 원리 조상숭배 = 祭禮의 계속 = 家의 계속 → 적장자손상속주의
가계계승을 위한 異性입양은 허용되지 않음.

5. 家長의 개념
▶ 家長 : 가족단체의 통솔자.지휘자, 家의 대표자, 一家一人, 남자로서 최연장자가 원칙. 夫婦로 구성되는 家에서는 父, 대가족에서는 항렬이 가장 높은 최연장자가 가장이 됨.
· 한국에서 가장이 법적 제도로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유교를 바탕으로 가족단체를 지도이념으로 추구했던 조선시대.

7.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개념
▶ 부계사회에서 혈통을 父系로 상속하는 제도.
부계사회에서 家를 대표하는 가장으로서 남자 가족원이 있으며, 그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 經國大典이 성립된 시기 이전에는 가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음.
▶ 조선 초 경국대전시기 → 부모, 자녀, 夫妻, 조부모와 손자녀 등 개별적인 관계로 파악. 가장과 家屬관계로 파악되지 않음. 첩, 노비, 雇工이 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파악. 그 외 첩에 대한 부로서, 노비에 대한 주인으로서, 고공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의미로 사용. 일상적인 집안일을 관장하는 사람. 가족에 대한 지휘 통솔자, 가족의 대외대표를 말하는 "집안 어른"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친족명칭 만큼 조직적이

지 못한 막연한 개념으로 정의됨.

8. 유교적 여성관의 확산

·內外法의 실행: 외출규제, 사찰방문금지, 외출시 얼굴을 가리거나 가마를 타도록 함. 가옥구조의 변화, 가정내 생활에만 충실하게 함.→婦德의 강조, 內訓

·여성 재가의 금지:

·旌表정책, 열녀, 三從之道의 강조, 혼인제도의 변화

9. 조선시대 가부장적 가족질서의 확립

· 妻妾의 구분과 嫡庶의 구분. 여성의 신분이 중요함.

17세기 이후 가장권의 계승이나 재산의 상속, 제사권의 계승이 적장자에게 집중되면서 여성은 배제되어 감.

▶ 조선중기-숙종조, 續大典시기

가장의 의무는 호구신고의 의무, 가족의 혼인에 대한 의무, 국가법에 의한 금지위반사항 감독 의무로 구체화됨. 사법상 가족 통솔권을 전제로 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함.

10. 사법상 규정된 가장의 권력과 지위

▶ 가족원의 경제권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처가 친정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가장이 자의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상속시에도 재산을 상속할 처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처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별로 상속인이 결정됨.

▶ 分財에 있어서도 가장은 자기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임의로 분재할 수 있음.

▶ 형법상에 규정된 가장의 권력과 지위를 보면, 법에 의해 가장의 권한이 보장됨. 특히 性과 관련하여 가장의 권한이 보장됨. 가장의 성적 행위의 대상은 처첩과 노비뿐 아니라 노비의 처까지도 포함되었으나 상대인 여성에게는 극단적으로 제한됨. 이러한 성의 이중기준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 특히 칠거지악과 같이 가장의 이혼권 등은 단적으로 남녀관계의 불평등을 입증해 줌.

▶ 조선시대 사회조직 원리는 신분과 성별을 두 개의 주축으로 하여 사회구성원을 구분한 사회로서 질서유지와 통솔을 위하여 각각의 영역에 위계성이 부여됨. 가부장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회구성원리에 부합된 체계로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가부장제는 국가조직과 가정은 질서유지 차원의 위계적 관계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가족내에서는 가족원들이 제한된 신분내에서 남녀의 성별 구분에 따라서 각각 다

른 역할을 담당하도록 위치지어짐.

11. 戶主制度의 성립과 기능

.조선시대 戶籍은 戶口의 조사(세금. 신분질서 확립차원)의 성격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호구실태 조사. 主戶
. 家長: 尊長, 남계혈족의 장. 집안 어른
. 家人: 동거인
. 호주: 고려시대부터 사용. 호적에 호주.
. 조선시대 戶首人, 호주, 가장-집안 공법상의 대표자

12. 일제시대 호주제도

▶ 일본식 家(이에)제도.-메이지 유신이후 氏를 바탕으로 함.
한국의 호적--전통적인 종법적 질서(가계계승)+일본식 家를 바탕으로 한 호주제강화,
일본식 호주+조선의 가계계승자, "가족법은 조선의 관습(?)을 따른다."
조선의 가족대표(종자, 종손)의 권위의 원천은 조상집단.
호주는 국가가 승인한 서류상의 지위, 국가가 인정하는 가부장권, 가족의 우두머리
폐적제도의 금지-호주계승의 금지, 포기, 선택이 불가능..
▶ 일본의 영향, 호주라 통칭, 법률상의 용어로 고정됨
1896년 전국 호수와 인구조사, 호적과 호패를 시행. 기존의 호적제도를 계승한 것이기는 하나 가장이 호주로 바뀜. 호적면에 법률상 칭호로서 표시됨, 문패사용
1909년, 일제식 家제도, 호주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호적제도가 이식.
가부장으로서 사법상 家의 주재자로 등장.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분가 등에 대해 본적지에 신고하도록 함.
▶ 호적의기재순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 조손관계, 기타 친족관계로 파악되었던 고유한 종래의 친족적 신분관계에서 호주가족관계가 우위를 점함..→새로운 형태의 가부장권이 창출됨.'
▶ 부부관계
처의 무능력제도 "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라는 기준으로 조사, 조선에서는 처는 부에 대하여 절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 "모든 일은 거의 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일본민법을 조선이 이식함.
"남편은 처의 거소를 지정한다. 동거를 강제할 권리가 있으며 부의 처에 대한 권리가

부가 호주인 경우와 가족인 경우에 따라 조금도 차이가 없으며, 처가 부가에 들어갈 경우가 부가 처가에 들어간 경우에 따라 구별이 없다"
"처의 재산은 부가 관리,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 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